



『2023년 국어 시험대비』 반나절만에 끝내는 ‘흔동하기’ 쉬운 어휘(1)

| 권기태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명사의 흔동 >

가죽	물체의 겉 부분. 예) 코끼리 <u>가죽</u> .
거죽	동물의 몸을 싸고 있는 질긴 껍질. 예) 책을 싸고 있는 <u>거죽</u> 을 벗겨냈다.
갑절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예) 그의 몸무게는 나보다 갑절이나 무겁다.
곱절	1.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예) 생신량이 작년보다 곱절이나 늘었다. 2. 일정한 수나 양이 그 수만큼 거듭됨을 이르는 말. 예) 비용이 세 곱절 더 들었다.
거름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예) 그의 몸무게는 나보다 갑절이나 무겁다.
걸음	두 발을 번갈아 옮기는 동작. 예) 아기는 한 걸음씩 발을 떼기 시작했다.
결단[決斷]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 예) 그는 한번 결단을 내린 일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결딴	1. 어떤 일이나 물건 따위가 아주 망가져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어 된 상태. 예) 아이가 장난감을 집어 던져 결딴이 났다. 2. 살림이 망하여 거덜 난 상태. 예) 이젠 집안을 아주 결딴을 내려고 하는군.
고삿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새끼. 예) 지붕을 고삿 매기한 것으로 보아 이곳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 지역이다.
고샅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예) 넓은 신작로에서 이내 좁은 고샅으로 접어들었다.
껍데기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예) 굴 껍데기.
껍질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 예) 굴껍질.

나비	천이나 종이 따위의 너비. 예) 그 종이는 길이가 아홉 자, <u>나비</u> 가 넉 자나 된다. 역이다.
너비	폭. 평면이나 넓은 물체의 가로로 건너지른 거리. 예) 도로의 <u>너비</u> 를 넓히는 공사 중이다.
넓이	면적. 예) 사각형의 <u>넓이</u> 는 가로길이와 세로길이를 곱하면 된다.
너머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힌 사물의 저쪽. 예) 그 집은 큰길 <u>너머</u> 에 있다.
넘어	▨ ‘넘다(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다.)’의 활용형.(동작을 나타냄.) 예) 좀도둑은 담을 넘어 도망쳤다.
노름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하는 도박. 예) 노름으로 집안 살림이 거덜이 났다.
놀음	여럿이 즐겁게 노는 일. 예) 재미있는 놀음을 하다.
등살	등근육. 예) 등살에 소름이 돋다. <small>www.gosiplan.com</small>
등쌀	몹시 귀찮게 구는 일. 예) 엄마 등쌀에 못 이겨 맞선자리에 나갔다.
매무새	옷이나 머리를 수습하여 입거나 손질한 모양.(옷매무새도 표준어임) 예) 한복의 매무새가 단아하다.
매무시	옷을 입을 때의 뒷단속. 예) 그는 현관 앞에서 양복을 매무시했다.
목거리	목이 붓고 아픈 병. 예) 예부터 도라지는 목거리에 효과가 있다.
목걸이	목에 거는 장신구. 예) 목걸이 디자인이 참 독특하구나.
발자국	발로 밟은 곳에 남아 있는 자국. 예) 하얗게 내린 눈 위로 들짐승의 <u>발자국</u> 이 선명하다.
발자취	발로 밟은 흔적. 또는 걸어온 자취 혹은 역정. 예) 이 문집은 그의 50년 집필 인생의 <u>발자취</u> 를 담고 있다.
발때기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밭. 예) 손바닥만 한 <u>발때기</u> 로 여섯 식구 살 길이 막막하다.
발떼기	밭에서 나는 작물을 밭에 나 있는 상태로 모두 사는 일. 예) 배가 <u>발떼기</u> 로 팔리면 주인이라도 함부로 따먹으면 안 된다.
봉오리	망울만 맺히고 아직 피지 아니한 꽃. 예) 간밤에 내린 비에 영산홍 봉오리가 피기 시작했다.
봉우리	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 예) 금강산의 크고 작은 봉우리를 모두 합치면 해야리기 어려워 선조들은 1만 2천봉이라 했다.
부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거나 나누어 놓은 낱낱의 범위나 부분. 예) 올해 영화제 시상식은 11개 부문으로 나뉜다.
부분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 하나. 예) 행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다.
사단[事端]	사건의 단서(端緒). 실마리. 예) <u>사단</u> 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사달	사고 또는 탈. 예) 늘 신경이 쓰였는데, 결국 <u>사달</u> 이 났구나.
아름	두 팔을 둉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 예) 둘 때 심었던 나무의 둘레가 한 <u>아름이</u> 나된다.
알음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 예) 전부터 알음이 있었다.
알음알음	서로 아는 관계, 친분. 예) 그 회사는 알음알음으로 소개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다.
앎	아는 일. 예) 깊은 힘이다.
예	아주 먼 과거. 예) 예부터 내려온 관습이다.
옛	지나간 시기의. 예전에. 예) 옛 추억에 잠기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